

디펜딩 챔프 놀라킨 광주도시공사...시즌 가능성 보인다

핸드볼코리아리그 개막전 SK와 접전 끝 23-23 무승부 강경민 7골·김지현 5골 활약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시즌 개막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SK슈가글라이더즈(이하 SK)와 경기에서 23-2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디펜딩 챔피언 SK를 맞아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이 큰 위안이었다.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은 7골을 몰아넣어 경기 MVP로 선정됐다. 김지현은 5골을 터뜨려 차세대 에이스로서 가능성을 선보였다.

오세일 감독은 "첫 경기라 선수들이 긴장한 탓에 제기량을 보이지 못했지만, 김지현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팀의 큰 자산"이라며 "경기 초반 강경민이 무릎 부상으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다음 경기는 잘 준비해서 꼭 이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팀은 시즌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팀의 주포인 강경민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잇달아 두 골을 넣어 SK를 몰아붙여 실책과 파울을 유도했다.

SK는 전반 4분이 경과해서야 조수연이 첫 골을 성공시키며 추격했다. 이후 양 팀은 동점과 역전을 주고받으며 전반전을 13-13으로 마쳤다.

그러나 후반 SK 유소정이 득점을 올리며 반격에 나섰고 강점인 속공플레이를 앞세워 광주도시공사에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전에도 양 팀은 앞치락뒤치락했다. 경기 종료 33초를 남겨두고 광주도시공사의 원선필이 1-1 찬스에서 강력한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맞고 나오는 바람에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양팀은 공방을 주고 받았으나 동점으로 개막전 경기를 끝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5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서울시청과 승패를 다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지난 2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SK전에서 슈트를 날리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안보는게 나왔던’ 세기의 대결

타이슨-존스 레전드 매치 흥분만 하다 끝나...출전 끝 무승부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과 로이 존스 주니어(51)의 프로 복싱 레전드 매치는 출전 끝에 무승부로 끝이 났다.

타이슨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존스 주니어를 상대로 15년 만의 복귀전을 치렀다.

1986년 스무 살의 나이로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한 타이슨은 ‘핵주먹’을 앞세워 프로복싱 역사상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설적인 복서다. 통산 전적 50승 2무 6패를 기록하면서 44차례나 KO를 뺏는 괴력을 발휘한 데다 ‘핵이빨’ 등 기행으로 인지도 면에서는 비교할 만한 복서가 없다.

이에 맞선 존스 주니어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미들급, 슈퍼미들급, 라이트헤비급, 헤비급 등 4체급을 제패했다.

두 선수 모두 은퇴한 지 오래된 지 했지만, 세계 프로복싱을 주름잡은 전설들이기에 수준 높은 경기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진 게 다행인 경기였다.

양 선수는 만약 관중이 있었다면 야유가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졸전을 2분 8라운드 내내 벌였다. 타이슨은 적어도 싸움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존스 주니어는 타이슨에게 한 방을 얻어맞지 않기 위해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다.

타이슨은 1라운드 시작부터 맹렬하게 달려붙였지만, 존스 주니어는 클린치(껴안기)에 이어 팔을 감는 홀딩으로 시간을 지연했다.

50대인 타이슨은 존스 주니어를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 가끔 목적인 펀치를 날렸지만, 스피드가 받쳐주지 않았다.

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됐다. 두 선수가 펀치를 날리는 시간보다 서로 끼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다가 라운드를 치를수록 체력이 떨어져 타이슨은 쫓아잡 기운이 없었고, 존스 주니어는 도망칠 힘이 없었다.

부심 없이 혼자서 경기를 진행한 주심 레이 코로나는 4라운드에 접어들어서야 존스 주니어에게 홀딩을 경고했다. 비공식 시험이기 때문에 경기 뒤에도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았다.

다만 세계복싱평의회(WBC)는 전직 복서 3명으로 비공식 재판을 꾸린 뒤 무승부를 선언했다.

타이슨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 주니어는 “무승부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며 “난 내가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전 5기’의 신화로 유명한 흥수한씨는 해설을 끝내며 “이런 시합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복싱 레전드 매치 3라운드에서 타이슨(왼쪽)이 존스에게 펀치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NFL 구영회 프로볼 무대 밝나 울스타 투표 중간집계 키키 1위

미국프로풋볼(NFL) 무대에서 뛰는 한국인 키키 구영회(26·애틀랜타 팰컨스·사진)가 첫 울스타전 프로볼 출전 꿈을 키우고 있다.

구영회는 지난 27일 NFL 사무국이 발표한 프로볼 팬 투표 중간 집계에서 7만5673표를 받았다.

애틀랜타가 속한 내셔널풋볼콘퍼런스(NFC) 키키로는 1위이자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로 범위를 넓혀도 키키 포지션 최다 득표다.

AFC 1위인 로드리고 블랭켄십(4만4865표·인디애나폴리스 콜츠)과 비교하면 득표 차가 꽤 크다.

구영회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팬 투표에서 1위를 지키면 커리어 처음으로 프로볼 무대를 밟게 된다.

구영회는 소속팀 애틀랜타(3승 7패)의 성적 부진 속에서도 키키로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 필드골을 25번 시도해 24개를 성공했다. 필드골 성공률은 무려 96%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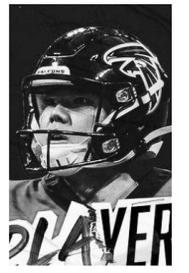
더욱이 구영회는 리그 톱 수준의 키키인지를 가르는 기준인 50야드 이상 필드골에서 성공률이 무려 100%다. 5번 시도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구영회는 방출의 아픔을 딛고 재기해 기량을 꽃피웠다.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이민 간 구영회는 2017년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에서 첫 시즌 4경기에 나와 6번의 필드골 시도 중 3번 성공에 그친 뒤 그해 10월 방출당했다.

와신상담한 구영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애틀랜타와 계약하며 2년 만에 NFL에 복귀했고, 지난 시즌 8경기에서 필드골 시도 26번 중 23번(88.5%)을 성공하며 재계약에 성공했다.

올 시즌에는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추락한 팀 사정 속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며 첫 프로볼 입성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경기도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제37회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 일반부 1000m 준결승에서 서울시청 심석희(오른쪽)가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심석희 ‘값진 은메달’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난 쇼트트랙 심석희(서울시청)가 2020~2021시즌 첫 대회에서 값진 2위를 차지했다.

심석희는 지난 27일 경기도 의정부 빙상장에서 열린 제37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 일반부 1000m 결승에서 1분32초528의 기록으로 김지유(성남시청·1분32초460)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끊었다.

그는 선두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4번째 바퀴에서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 선두 자리에 올라섰다.

그러나 6번째 바퀴에서 김지유에게 선두를 빼앗긴 뒤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3위는 1분32초557을 기록한 김아람(고양시청)이 차지했다.

남자 일반부 1000m에선곽윤기(고양시청)가 1분31초636의 기록으로 한승수(스포츠투트)와 박세영(화성시청)을 누르고 우승했다.

남자 대학부 1000m에 출전한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황대현(한국체대)은 1분26초273의 기록으로 여유롭게 1위 자리에 올랐다.

전날 여자 일반부 3000m에서 5분18초52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남자 일반부 3000m 결승에선 안현준(성남시청)이 6분33초156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런
3관	도굴
4관	이웃사촌, 프린세스 에미: 마법 책의 비밀
5관	이웃사촌
6관	도굴
9관	프리카 테스데이
7관	세네카를 런, 킹덤 오브 헤븐: 디펜더스 컷 버튼: 세상을 바꾸는 힘
8관	세네카를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내가 죽던 날, 로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지원 공모전시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